



식량과 비료

2022년
11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 비료 관련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6. 무기질 비료 우수성 홍보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한국 비료 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1 회원사 동정

□ (주)조비

○ ‘지오팜’ 등 4종 추천

- ‘지오팜’ ‘유기애골드’ ‘첫거름골드’ 등 4종 추천
- 고품질 유기질비료, 땅 기름지게 작물을 풍성하게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앞두고 (주)조비가 질소·인산·칼리와 고급 유기질 원료가 최적의 조건으로 배합된 고품질 유기질비료 4종을 소개했다.

조비, 토양 개량효과로 다수확 가능한 유기질비료 4종 추천

(주)조비는 ‘지오팜’, ‘유기애골드’, ‘첫거름골드’ 등 혼합유기질 비료 3종과 혼합유박 비료 ‘첫거름혼합유박’을 추천한다.

(주)조비의 혼합유기질 비료 ‘지오팜’, ‘유기애골드’, ‘첫거름골드’와 혼합유박 비료 ‘첫거름혼합유박’은 질소·인산·칼리와 고급 유기질 원료가 최적의 조건으로 배합된 고품질 유기질비료이다. 토양 개량 효과로 토양의 보수성과 통기성을 좋게 하고 미생물 활동에 도움을 주어 작물의 생육을 개선시킬 수 있다. 작물의 생육 초기부터 생육 후기까지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고품질의 작물을 다수확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과수 및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등 작물의 당도, 맛, 향기, 색깔, 저장성 향상은 물론 작물을 튼튼하게 하여 각종 생리장해에 대한 저항성 증대에 효과적이다. 이에 더해 입상 형태로 사용이 편리하고 균형적인 시비가 가능하다.

(주)조비 관계자는 “양질의 원료를 최적의 조건으로 배합한 조비의 유기질비료는 고추, 딸기 외 과채류, 경엽채소류, 근채류 등 원예작물과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작물의 양분 흡수와 뿌리 생육을 촉진해 밭고 사용될 수 있다”며 지원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 2022.11.10.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LG 팜한농, 4년 만에 CEO 교체…김무용 전무 선임

LG화학 계열 농자재 업체 팜한농은 신임 CEO(최고경영자)로 김무용 LG화학 프라이머리 케어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Primary Care) 사업부장 전무가 선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김무용 전무는 서울대 약학과 석사, 미국 텍사스대 의약화학 박사를 받은 뒤 1993년에 LG화학에 입사했다. 이후 2017년 생명과학사업본부 바이오 담당에 이어 SD(Specialty Drug)사업부장 겸 해외영업담당을 역임했다. 올 1월에는 생명과학 사업 전략 구체화와 사업체질 개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전무로 승진했다.

팜한농 관계자는 “김무용 신임 CEO는 레드바이오 분야의 폭넓은 업무 경험과 더불어 그린바이오 사업 전략 수립·실행과제 도출 경험도 보유한 전문가”라며 “앞으로 사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화에 역점을 두고 팜한농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용 전무가 팜한농 새 수장으로 선임되면서 그간 회사를 이끌었던 이유진 대표이사 전무는 4년여 만에 자리에 물러나게 됐다.

※ 2022.11.24. 신아일보 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토양개량을 위한 다목적 필수자재 "

- 용성인비(종합토양개량비료) !!



▶ 비료사용과 우리 농업현실

우리나라의 농경지는 모암이 화강암으로 석회와 고토 성분이 부족한데다가 여름철의 집중강우로 양분이 용탈되고 산성화되므로 척박한 경작지의 분포가 많습니다. 그간 고소득 생산위주 및 양적증대를 위한 과다시비로 농산물 품질을 떨어뜨리고 지력은 현저히 약해지는 농업환경으로 변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토양환경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토양개량제의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비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성인비는 지력유지와 농산물품질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공급되는 비료입니다.

▶ 친환경비료로서의 용성인비의 특징 및 효과

엔피코 용성인비는 인산질비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종합토양개량비료로 다량의 석회, 고토, 규산, 미량요소를 함유한 토양개량용 자재입니다.

고추, 배추, 마늘, 양파 등 원예작물뿐만 아니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감귤 등 과수재배 사용 시 용성인비는 작물기후 변화(불량환경)에 대한 내성증대 및 냉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어 원예, 과수류 초기생장을 튼튼히하며 토양 미생물 활력증진으로 뿌리 발육촉진, 생리병예방, 과실의 착색을 유도하여 수량증수, 맛, 당도, 때갈향상 등 농산물품질향상, 웃자람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 농촌진흥청 지정 공인기관 등 시험결과

- 과수(원예류 등) : 과중 15%증가, 과육경도 2배이상 증가, 당함량 증가 등
- 마늘 : 수량 12%증수, 품질(상품성) 13%향상

*2018 원예과학회, 2021~2022 충남대

▶ 함유성분(%)

- 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12, 알카리분 40, 규산 10~20,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석회20~30, 철, 구리, 아연, 망간, 몰리브덴 등 미량요소 함유

▶ 사용기준량

- 과수, 원예 : 40~110kg/10a(300평)

- 토양개량용 : 100~250kg/10a(300평)

※ 풍농 자료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국제 원자재 수급 상황 및 현안 수시 대처(농식품부, 농협 등)
- 무기질비료 관련 이슈 대응 및 기자단 설명(농진청 등)
- 원자재 가격급등, 농기자재 대책 정책 토론회 우리입장 설명(11.17)
- 재활용분담금 단가 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대응(11.18)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농해수위서 1조원 늘어·농식품 예산 증액 ‘높은 벽’ 통과 관심

- 예결위로 넘어간 ‘내년도 농식품 예산안’ 어떻게 될까
- 전체회의 열고 부별 심사 진행

18조3740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다. 농식품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17조2785억원이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조955억원이 뺀 셈이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증액사업도 예결위 심사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결위에선 각 상임위에서 낸 감액 의견만 수용하고 증액안은 사실상 무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 가능한 재정은 뺀데 상임위마다 소관부처 예산안을 수천억원 넘게 증액 의결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빚어지는 현상이다. 정부 예산안은 본심사 단계인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2년 농업예산은 정부안 16조6767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16조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농해수위가 정부안보다 8710억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에선 2000억원 증액만 받아들였다. 당시 농해수위 소속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예결위 여야 간사로 활동했지만 증액의 벽은 높았다. 내년 농업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농해수위 소속으로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은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최춘식(경기 포천·가평)·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주철현(“ 여수갑) 민주당 의원 등이다. 농해수위 소속은 아니어도 농촌에 지역구를 뒀거나 농업문제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 농업예산 증액에 나서기도 한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예결위는 10~15일 전체회의에서 경제·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하고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 여야 의원들은 ▲농사용 전기 인상차액 지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도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무기질비료 인상액 보조 계속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농촌 하수도 보급 개선 ▲전기농기계 보급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정부에 요구했다.

※ 2022.11.16.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227억 증액...난방용 면세유 지원 299억 신규

- 농업예산 1조910억 증액·의결
- 무기질비료 보조 500억 추가

윤석열 정부의 첫 농업예산에 대한 상임위 예산소위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증액규모는 1조910억 원으로, 예산소위 위원들은 세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함과 동시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증액·의결했다.

▲주요사업=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먼저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에 하계조사료, 녹두·팥, 옥수수, 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를 추가하고, 논콩(100만원/ha→200만원/ha), 밀(50만원/ha→100만원/ha)에 대한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227억 증액된 94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쌀에서 콩, 조사료, 일반작물, 풋거름 등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예산 75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예산 500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12개월분(연간 103만톤)이 아닌 6개월분(64만톤)만 편성돼 가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분담률은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자부담 20% 등이다. 또 농업분야 자금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과 디지털 농어업 혁신 성장 및 국정과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1500억원도 예결소위 심사에서 반영됐다.

※ 2022.11.4.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윤 대통령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을 확대하고, 비료·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의 방안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밀·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는 올해의 590억원에서 (내년)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농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농업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예산 구상도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총 639조원 규모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17조278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4% 증액됐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식품부 등 소관부처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한다.

※ 2022.10.25.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농업용 원자재 수급난, 특대책 세워야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에 이어 환율상승까지 겹치면서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무기질 비료와 농약, 유기질비료, 상토 등 필수 농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 생산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농가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업생산을 위한 농가 재료비 구입가격 지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비료는 196, 농약 130.4, 영농광열비 167.9 등으로 평균 140.6에 달할 정도다. 예를들어 농가에서 예년에는 100원을 주고 구매 가능하던 농자재들이 이제는 140원을 줘야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내년 농업소득은 최대 14%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원자재 인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무기질비료의 경우 수입원자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농업용 원자재 수급난은 농기자재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이는 농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이에 대응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무기질비료의 경우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를 탈피해 안정적인 수급망 확보와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질비료도 정부가 지원하는 납품가격을 현실화하고 원자재를 벌크 형태로 해상운송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농기계는 농가 구입시 구매자금의 이자율을 1.5%로 유지하는 한편 원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농약의 경우도 국산원제 개발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 2022.11.22.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농식품부)농관입,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실시

○ 비료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점검

하반기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여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집중 단속

- (단속기간)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 (단속내용) 비료 공정규격(주성분·유해성분 등)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 (결과조치) 관할 자자체에 위반내역 통보(행정처분 조치)

※ 2022.10.31. 농식품부 보도자료

□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 지위 남용해 회피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쌍방 합의시 연동제 예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 단가 연동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가 공전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하청 업체들이 부담을 안게 되자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 주요 조항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3개월이다.

※ 2022.11.23. 연합뉴스 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농식품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의견조회('21.2.10.~2.24.), 입법예고('21.4.27.~6.7.), 법제처 심사('22.11.1.) 및 국무회의 의결('22.11.8.)

•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임

• 앞으로 스마트농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 농업의 도전과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임

*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발표('22.10.5.)

※ (주요 내용) 법안은 총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

- 제1장 총칙(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장 육성·지원 체계(계획수립(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지원센터 지정 등)
- 제3장 기반 조성(전문 교육기관, 기술개발, 데이터 플랫폼, 거점단지 지정 등)
- 제4장 보급 및 확산(육성지구 지정,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수출 지원 등)
- 제5장 보칙(「공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등)

※ 2022.11.8. 농식품부 보도자료

□ (농식품부)2025년 정부 식량종자 공급률 60%, 비축 5% 추진

○ 국립종자원, 식량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으로 식량안보 적극 뒷받침

▷ '25년 보급종 공급률 60%(30년 65%), 식량 종자 비축 5%(30년 10%) 추진

- 보급종 공급률(%): ('22) 51 → ('23) 56 → ('24) 59 → ('25) 60 → ('30) 65
- 종자 비축 물량(%): ('22) 1 → ('24) 3 → ('25) 5 → ('27) 8 → ('30) 10

▷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

• (생산측면) 유전자 분석을 종자검사 필수항목으로 변경, 포장검사 드론 영상분석 도입, '10년 이후 육성된 고품질 품종으로 보급종 50% 교체, 벼 다수확 보급종 공급량 대폭 축소, 농가 생산장려금 분리 지급

• (공급측면) 주요 식량 종자 비축 확대, 가루쌀 종자 생산 공급시스템 구축, 종자 신청 공급시스템 개선

• (기능역할) 재해 안전관리 강화, 총괄 조정 기능과 역할 강화

※ 2022.11.15. 농식품부 보도자료

□ (통계청)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 '22년 쌀 생산량은 376만 4천톤으로 전년의 388만 2천톤 대비 3.0% 감소
 - 재배면적: ('21) 732,477ha → ('22) 727,054ha (0.7%↓)
 -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 ('21) 530kg → ('22) 518kg (2.3%↓)
 -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1) 516kg → ('22) 504kg
 - 총 생산량(현백률 92.9%): ('21) 3,882천톤 → ('22) 3,764천톤 (3.0%↓)
 -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1) 3,777천톤 → ('22) 3,662천톤

※ 2022.11.15.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2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 '22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3,953ha로 전년 13,345ha보다 4.6% 증가
 - 금년 정식기 배추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증가
- '22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6,340ha로 전년 5,919ha보다 7.1% 증가
 - 금년 정식기 무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증가

※ 2022.10.27.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 '22년 고추 생산량은 6만 8,984톤으로 전년의 9만 2,757톤보다 2만 3,773톤(-25.6%) 감소
 - 총 생산량 : ('21) 92,757톤 → ('22) 68,984톤 (-25.6%)
 - 재배면적 : ('21) 33,373ha → ('22) 29,770ha (-10.8%)
 - 10a당 생산량 : ('21) 278kg → ('22) 232kg (-16.6%)
- '22년 참깨 생산량은 1만 1,679톤으로 전년의 1만 90톤보다 1,589톤(15.7%) 증가
 - 총 생산량 : ('21) 10,090톤 → ('22) 11,679톤 (15.7%)
 - 재배면적 : ('21) 19,218ha → ('22) 22,039ha (14.7%)
 - 10a당 생산량 : ('21) 53kg → ('22) 53kg (0.9%)
- '22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2만 4,484톤으로 전년의 11만 8,084톤보다 6,400톤(5.4%) 증가
 - 총 생산량 : ('21) 118,084톤 → ('22) 124,484톤 (5.4%)
 - 재배면적 : ('21) 3,888ha → ('22) 3,495ha (-10.1%)
 - 10a당 생산량 : ('21) 3,037kg → ('22) 3,562kg (17.3%)

※ 2022.11.24. 통계청 보도자료

□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식 출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월 시행)』에 근거,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로 임명된 김상협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32명), 정부위원(21개 부처·청)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등이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 개최

* 전체회의 前 신입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새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 同 전략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 수립('23.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책임있는 실천, ② 질서있는 전환, ③ 혁신 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마련

-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 無탄소 新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 인허가 등 다부처 복합 과제에 대해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기술혁신을 통한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 민간 주도의 임무 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②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③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조성 등 3대 방향 제시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배분 조정체계 도입 등 12대 과제 추진

※ 2022.10.26.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 (환경부)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6.4% 감소, 6억 5,622만 톤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이후, 2년 연속 감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보다 6.4% 감소한 6억 5,622만 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5억 6,992만 톤으로, 전년보다 4,165만 톤(6.8%)이 감소했다. 산업공정 분야 2020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4%에 해당하는 4,853만 톤으로, 전년보다 7%가 감소했다. 농업 분야의 2020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2%에 해당하는 2,105만 톤으로, 전년보다 9만 톤(0.4%)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장내발효* 15만 톤(3.4%), 가축분뇨 9만 톤(1.9%), 농경지토양 5만 톤(1.0%)이 증가한 반면, 벼재배에서 22만톤(3.6%), 작물잔사소각에서 0.1만 톤(4.6%)이 감소했다.

* 소, 돼지 등의 가축이 사료를 소화시킬 때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

〈 농업 분야 〉

▷ (총괄) '20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2%인 21.1백만톤으로 '90년 대비 0.4%, 전년대비 0.4% 증가

- (부문비중) 벼재배 부문이 27.1%를 차지하며, 농경지 토양 26.6%, 가축분뇨처리 23.7%, 장내 발효 22.5% 순

▷ 주요 증감항목

- (장내발효) '19년 4.6백만톤 → '20년 4.7백만톤(0.15백만톤 ↑, 3.4% ↑)

- (벼재배) '19년 5.9백만톤 → '20년 5.7백만톤(0.2백만톤 ↓, 3.6% ↓)

※ 2022.10.25. 환경부 보도자료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누계)

구분	'19년	'20년	'21년	'21년 9월말	'22년 9월말
생 산 량	2,319	2,142	2,287	1,896	1,618
출 하 량	2,218	2,054	2,319	1,966	1,565

※ 협회 회원사 기준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및 환율

(단위 : \$/톤, 원)

구 분	2021년		2022년		
	평균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암모니아	546	691	894	1,048	964
D A P	552	1,004	951	944	940
염화칼륨	317	401	578	678	994
환 율 (매매기준율)	1,144	1,183	1,203	1,259	1,339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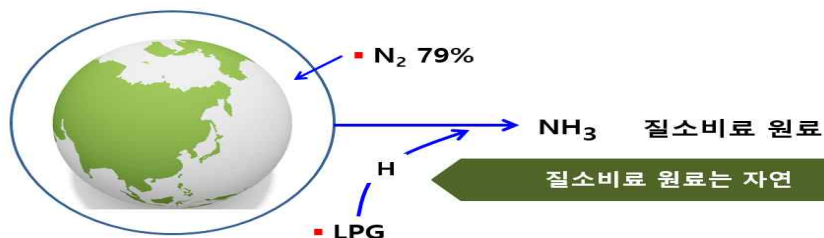
6 무기질비료 우수성 홍보

□ 무기질비료의 원료

무기질비료의 원료는 모두 자연에서 얻은 것입니다.

질소질 비료인 암모니아는 공기 중 질소와 LPG를 태워 생성된 수소를 고온·고압에서 합성해서 만들며,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한 제품이 요소비료입니다.

질소질비료 중 암모니아



인산질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은 유기물이 퇴적되어 나타나는 2차광상으로 인(P_2O_5)을 18~40%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함유하고 있어 인산질비료(용성인비, 용과린, 과석 등)와 인산 용액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산질비료 원료인 인광석 및 인광석 분말



칼리질 비료는 해수가 증발하여 생겨난 암염지대의 칼리염화물 광석이 원료이며, 광석 채굴과 여러 공정을 걸쳐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칼리질비료 원료인 칼리 광석



※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 인용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올원30
- 성분량 : 30-7-7+1+0.1+HAC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요소 10% 함유하여 효과가 지속적
 - 고농도 질소를 함유하여 사용량 절감 가능
 - 고토, 붕소를 함유하여 미질 향상
 - HAC이 함유되어 뿌리발육 촉진, 비료흡수 증대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식량과 비료

-2022년 11월호-

□ (주)조비



- 제품명 : 스피드추비
- 성분량 : [13]-1-12 (질산태 질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속효성인 질산태 질소를 함유하여 양분 흡수가 빨라 초기생육에 도움이 됨
 - 질산태 질소는 낮은 온도에서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좋아짐
 - 질산태 질소는 양이온의 흡수를 좋게 하여 작물의 생리장해 예방 및 고품질 생산에 도움을 줌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는 일이 적어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질소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효과가 큼

□ (주)팜한농



- 제품명 : Eco-sol(High K)
- 성분량 : 3-15-43+1+0.05+철0.025+망간0.025+아연0.008 +구리0.0075+몰리브덴0.0005+PAA(뿌리발육 아미노산)
- 특성 및 효과
 -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원료의 효율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고품질 관주용 비료
 - 용해도가 아주 뛰어나 관주시 노즐의 막힘이 없고 작물 흡수가 빠름
 - PAA(뿌리발육 아미노산) 함유로 뿌리발육이 촉진되고, 양분 흡수 및 토양 보습효과가 증대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주)풍농



- 제품명 : 쌀플러스맛나
- 성분량 : 12-6-6, 고토2, 붕소0.1, 규산5, 석회10
- 특성 및 효과
 - 필수 3요소와 고토, 규산, 석회, 붕소 및 유황 다량함유된 밑거름 비료
 - 고품질 쌀 수확을 위해 다량의 고토함유로 벼 생육향상 및 미질 향상
 - 다량의 규산, 석회 함유로 멸구, 도열병 예방에 효과적
 - 벼 가지거름 생략이 가능한 지효성 성질의 비료효과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망심축조짱
- 성분량 : 28-7-9+1+0.1(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함유, 고농도 축조시비 전용비료
 - 초기생육에 효과적이며, 증수효과 우수
 - 비효가 오래 지속되며 미질향상

□ (주)세기



- 제품명 : 원샷30
- 성분량 : 30-7-8+1+0.1(축조시비 가능)
- 특성 및 효과
 -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성분이 함유된 고농도 복합비료로써 시비노동력과 영농비 절감할 수 있는 비료
 - 저인산비료로 이끼나 괴불 발생이 심한 토양에 효과적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발비료
- 성분량 : 12-5-(7)+3+0.3
- 특성 및 효과
 - 기능성 미생물 함유로 염류피해 및 병해충 경감에 도움
 - 부식산 함유로 토양개량효과 증대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작물의 품질(당도, 향) 향상

※ 2022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